

나 소화기계암

27 자동차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

성별	남성	나이	50세	직종	자동차 조립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3년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자동차 차체부서에서 조립 작업 및 메탈 피니쉬 작업에 종사하였다. 2010년 6월 영상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CT 및 초음파 검사상 간우엽의 간세포암종이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을 내원하여 부분간절제술을 시행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차체메인 조립과 스팟용접을 수행하였으며, 1986년 이후에는 차체메인조립, 디젤차량의 메탈피니쉬 작업, 차량오물제거, 용접 등을 수행하였다. 용접작업에서 유해광선, 금속흙, 일산화탄소, 오존 등의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 있었고, 방청작업을 수행하면서 방청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. 또한 도장작업 전 오물제거를 위한 세척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, 현재 현장과 과거의 현장이 변화하여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는 없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요인(유기용제)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, 음주력은 주당 3회 소주 1병반이었다. 특히 가족력은 없었다. 20년간 B형간염 보균의 과거력이 있었다. 2010년 6월 영상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CT 및 초음파 검사상 간우엽의 간세포암종이 의심되었고, 만성간질환 소견이 관찰되어, 대학병원 내원하여 부분간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시행받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차체 오물제거시 사용한 세척제에 의해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, 그 노출정도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, 20년간의 B형간염 보균 과거력, 지방간 혹은 간경변으로의 만성간질환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끝.